

## 주요내용

## ▶ 인도네시아 무역부, 필수식품 유통업체 등록 의무화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필수식품의 공급량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무역부 장관령 ‘2017년 제20호’를 3월 30일자로 발표하고, 4월 3일자로 시행하였다.
- 동 규정에 따르면 쌀, 콩, 고추, 붉은양파, 설탕, 식용유, 밀가루, 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반드시 유통업자등록증(TDPUD)를 소지해야 한다.
- 해당 제품 유통업체는 인-허가 정보시스템(SIPT) 웹사이트(<https://sipt.kemendag.go.id>)에 가입한 후, 필수식품 및 주요 식자재국에 유통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받아야한다.
- 유통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유통업체는 필수식품의 유통량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 마다 갱신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분류	필수
필수 농작물(Barang Kebutuhan Pokok Hasil Pertanian)	1. 쌀 2. 두부원료 대두와 팜베(콩으로 만든 전통식품) 3. 고추 4. 붉은 양파
필수 가공식품(Barang Kebutuhan Pokok Hasil Industri)	1. 설탕 2. 식용유 3. 밀가루
필수 축수산물(Barang Kebutuhan Pokok Hasil Peternakan dan Perikanan)	1. 쇠고기 2. 닭고기 3. 계란

\*자료 : 자카르타 경제신문 「무역부, 기초식품 유통업체 등록 의무화 본격시행」  
무역부 장관령 2017년 20호

##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유통과정이 불투명하여 필수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농식품도 연중 물가변동 폭이 큰 시장이다. 금번에 고시한 필수농작물 중 쌀의 경우는 자급자족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양파의 경우 현지 생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유럽 및 뉴질랜드산이 수입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양파 생산과잉 시 비교적 가격이 낮은 중소과는 수출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것으로 판단된다.